

# 매각 앞둔 광주은행 차기 노조 촉각

### 내일 집행부 선거 앞두고 지역경제에 관심 후보 3명 분리매각·직원 고용승계 뜻 공유

2011년 상반기 민영화에 대비해 우리 금융에 대한 매각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은행 노조가 2일 집행부 선거를 치르며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광주은행 노조는 최근 같은 처지에 놓인 경남은행 노조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독자생존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의 일괄 매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치러질 제16대 노조위원장 선거에 권택은, 김두봉, 이상재 후보 등 모두 3명의 후보가 나섰다. 이들은 민영화 추진에 있어 광주은행 분리매각과 함께 고용안정, 광주은행 연속성 유지, 경영권 독립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또 이들은 외국 금융권 등 투기자

본에 의한 인수와 우리금융사주조합에서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공유하고 있다. 권택은 후보는 "광주은행 설립취지에 맞고 지방은행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자본에 의해 인수돼야 한다"며 "광주은행이 독자생존할 수 있고 지역정서에도 어긋나지 않는 민영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봉 후보는 "고용안정과 광주은행 연속성 유지, 독립 경영권이 확보될 때 광주은행이 지방은행으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며 "광주은행 분리매각을 위해 경남은행 노조, 현 노조 집행부 등과 함께 대책을 세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재 후보는 "우리금융사주조합이 아닌 광주은행 우리사주 조합으로 민영화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우리사주로서 경영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은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직원의 고용 승계를 위해 우리금융지주에서 분리해 매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3후보간의 선거결과가 주목된다. /이은미기자 emlee@



## 광주은행, '2010 사회공헌기업' 대상 수상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0 사회공헌기업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기업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올해로 7번째 맞는 사회공헌기업 대상은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5천여명의 무이자 자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되는 도·농 상생자금은 서울 강동농협 등 136개 도시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한 2546억원에 중앙회에서 양곡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2454억원을 더한 5000억원 규모다. /연합뉴스

은행은 지역경제발전 부문에서 대상 상을 받았다.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 CEO도 임인 '광은리더스클럽'과 호남에 소재하는 명가들을 발굴하여 토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호명가(所湖名家)' 등의 독창적인 서비스를 비롯해 지역사회 공헌활동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송기진 은행장은 "이번 2010 사회공헌기업대상 수상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광주은행의 일련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KJB는 메세나 활동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민과 함께 동고동락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수완 이지더원' 청약경쟁률 최고 4.7대 1

### 전 평형 마감

EG건설(대표이사 김용상)이 광주 수완지구에 분양한 '수완 이지더원' 아파트가 최고 4.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평형이 마감됐다. 지난달 30일 EG건설에 따르면 지난 25~29일 진행된 '수완 이지더원' 아파트의 1~3순위 청약에서 568가구 모집에 총 1696건이 접수돼 평균 3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특히 광주지역에서 오랜만에 선보인 전용면적 59㎡(24평)형은 3순위까지 청약에서 271가구 모집

에 1155건이 몰려 최고 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84㎡(33평) A형은 243가구 모집에 454명이 청약해 평균 1.9대 1, 84㎡ B형은 49가구 모집에 80가구가 신청해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완 이지더원'의 인기 비결은 수완지구 최초로 민영 59㎡를 공급하는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돼 있고, 계약금 5% 인하와 중도금 무이자 등 가격부담을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84㎡형의 경우 방 4개 혁신형

면으로 마치 40평형 같은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돼 공간활용을 극대화했다. EG건설 관계자는 "공급이 뜸했던 59㎡ 중소형 아파트가 실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며 "앞으로 광주 아파트 시장은 1~2인 가구 증가와 다자녀 가구 감소 등으로 중소형의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완 이지더원의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일이며, 계약은 8~10일까지다. 분양 문의 062-368-8833. /박정욱기자 jwpark@

## 전국 산지농협에 5천억 무이자 지원

농협은 30일 대강당에서 최원병 회장과 대의원 조합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농 상생자금 전달식'을 열어 전국 512개 산지농협에 무이자 자금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농협을 지원하기 위해 5천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되는 도·농 상생자금은 서울 강동농협 등 136개 도시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한 2546억원에 중앙회에서 양곡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2454억원을 더한 5000억원 규모다. /연합뉴스

## 저축은행 오르고 예금은행 내려

## 은행권 대출금리 양극화 심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져 상회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은행 대출금리는 하락세를 보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일반대출 금리는 지난 10월에 평균 연 13.85%로 전월보다 0.8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5년 1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12월의 연 11.48%에 비해서는 2.37%포인트 급등했다.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을 빌렸을 때 대출금리가 2.5%포인트 오르면서 연간 대출 이자는 125만원 불어난다. 반면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평균 연 5.37%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말에 비해서는 0.44%포인트 떨어졌다. 은행

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12월의 연 11.48%에 비해서는 2.37%포인트 급등했다.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을 빌렸을 때 대출금리가 2.5%포인트 오르면서 연간 대출 이자는 125만원 불어난다. 반면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평균 연 5.37%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말에 비해서는 0.44%포인트 떨어졌다. 은행

대출금리의 하락세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 간 대출금리 격차는 작년 말 5.67%포인트에서 10월 말 8.48%포인트로 확대됐다. 은행권의 대출 상품 간에도 금리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0월에 연 4.74%로 전달보다 0.06%포인트 떨어진 반면 집단대출을 제외한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7.36%로 0.14%포인트 올랐다. 일반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간 금리차는 작년 말 1.35%포인트에서 지난달 말 2.62%포인트로 2배 가까이 커졌다. /연합뉴스

## 광주신세계 신임 대표에 조창현 상무

## 현대그룹, 현대차 상대 500억 손배소

### 내년 3월 정기주총 통해 선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사 내년 3월 바뀔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광주신세계는 "그룹이 정기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조창현(48·사진) 신세계 백화점 부문 기획담당 상무가 광주신세계 총괄 임원으로 내정돼 조만간 부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상무는 광주신세계 총괄 임원 업무를 수행하다 내년 3월 열린 광주신세계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사로 선임되면 정식으로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경남 진주 출신인 조 상무는 경상대를 졸업한 후 지난 1987년 신세계에 입사, 신세계 백화점 부문 영업포장 영업팀장, 강남점 마케팅 팀장, 백화점 본부 기획담당 상무 등을 거쳤다. 한편, 이장현 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오는 2012년 문을 열 예정인 경기도 의정부 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현대그룹이 지난달 30일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했다며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그룹은 소장에서 "현대차는 '은행계좌에 예금으로 입금된 이상 자기자본이든 대출이든 그 성격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일괄규정을 잘 알면서도 프랑스 은행에 입금된 1조 2000억원의 출처와 성격을 문제 삼아 근거 없는 의혹들을 언론과 정·관계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채권단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양해각서(MOU) 체결시기를 2~3일 연기하겠다고 밝히고, 예금 1조 2000억원의 출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인수계약을 방해받음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일부 청구로 500억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달 16일 채권단으로부터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인수자금 용도로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금 성격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한편 현대그룹은 일괄 규정을 명시된 마감시한을 넘기지 않고 지난달 29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와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MOU를 체결, 매각절차는 일단 정상적으로 진행돼 갔다. /연합뉴스

## 편의점도 라면·소주 등 가격인하 도전

롯데그룹 계열인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는 1일부터 전국 4400여 점포에서 주요 상품 9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7~24% 인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신라면'은 730원에서 600원으로 17.8%, '삼양라면'은 700원에서 600원으로 14.3% 낮추고 소주

'처음처럼'과 '참이슬', '참이슬 후레쉬' 등 360ml 제품 가격은 각각 1450원에서 1100원으로 24.1%씩 내린다. '서울유유 원유유'와 '맛있는 우유 GT', 'ESL 원유유' 1L 제품 값은 각각 2300원에서 2140원으로 7%씩 인하한다.

세븐일레븐 측은 이번 가격인하로 해당 상품 판매량이 20% 이상 증가하고 평소 편의점 이용률이 높지 않은 40대 이상 고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쟁업체인 보광해미리마트와 GS25는 당장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지붕개량 금속칼라강판

단 한번 시공으로 평생지붕 걱정 끝!

공정 직영, 공사 직거래, 주택 개·보수, 인테리어, APT, 주택 리모델링, 협력업체 및 영업사원 구함

최신형 신개발품 대농금속칼라강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수명이 반 영구적이며, A/S가 신속합니다.
- 정부인정 100% KS제품만을 사용합니다.
- 공정직영이므로 고객이 원하는 크기와 색상을 맞추어 드립니다.

다 하루면 시공완료 | 주택, 지붕, 창고 | 공장, 헬스, 덕트

대농산업 | 본사 및 공장주소: 광주시 서구 서창동 530번지 | 062-373-6548 · 6549 | 010-8608-6548

## 특별한분들을 위한 특별한혜택 화순이리spark

창을 열면 청정수목원 문을 나서면 민연산 푸른빛 환경이 빛나는 푸른숲 전원주택을 만나보십시오.

1단지, 2단지

警晶産業開發(株) | TEL 062-385-1013 · 1014 | HYUNJOUNG INDUSTRIAL DEVELOPMENT INC